

##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간의 관계

임세미<sup>1</sup>, 염영란<sup>2\*</sup>

<sup>1</sup>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생, <sup>2</sup>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Blood Donation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f Nursing Students

Semi Lim<sup>1</sup>, Young-Ran, Yeom<sup>2\*</sup>

<sup>1</sup>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헌혈 실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G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지식 정도는 평균 10.83점, 태도 정도는 평균 3.15점, 이타성의 정도는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헌혈 태도와 이타성( $r=.447$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타성을 높이고 코로나로 인해 헌혈 수급이 부족한 현 실정에 맞추어 대학생들의 헌혈 태도와 인식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 correlation about the knowledge of blood donation, attitude and altruism to nursing students, to use as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he ways to promote active blood donation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33 nursing students from June 4 to 15, 2020. Data analysis included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SP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average level was 10.83, the average degree of attitude was 3.15, and the average degree of altruism was 3.57.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 factors, the blood donation attitude and altruism( $r=.447$   $p<.001$ )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blood donation to nursing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voluntary activities is main factor to increase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lood donation attitude and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blood supply and demand is insufficient due to COVID 19.

**Key Words** : Nursing students, Blood donation, knowledge, Attitude, Altruism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Yeom(pseudoan@naver.com)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신 의학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을 하면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많은 질병들에 대한 원인과 치료제가 발견되었고, 유전자 진단을 통한 선천성 유전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혈액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혈액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1].

우리나라 국민 헌혈률은 2017년 5.7%, 2018년 5.6%, 2019년 5.38%로 헌혈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 수는 2020년 5월 기준 작년 2019년 5월 대비 11만 명인 12%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혈액보유량은 2.7일분으로 하루 적정기준 5일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의단계까지 떨어져 혈액부족은 더욱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외의 집단 감염 확산과 우리나라 헌혈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재난이나 대형사고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이다[3].

2019년 총 헌혈 2,791,092건 중 헌혈에 참여한 대상의 연령을 살펴보면, 16-19세가 28.9% 20-29세 36.6% 30-39세가 15.2%, 40세 이상이 19.3%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 25.5%, 대학생 22.8%, 고등학생 20.7%, 군인 1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9세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3]. 이와 같은 결과는 20대 대학생의 헌혈 참여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의학적 지식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기증자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올바른 지식 및 태도를 가지고 헌혈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4]. 특히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은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나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수혈이나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5], 다른 전공생들보다 헌혈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료 분야 학생보다 비 의료 분야 학생의 헌혈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6],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이 헌혈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헌혈 참여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의료 분야 전공 대학생들의 헌혈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부정적인 태도는 헌혈 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8].

국내에서 헌혈과 관련된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 참여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헌혈에 대한 태도는 다루지 않았고[9], Bae 등[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타성의 변수를 다루지 않았다. 헌혈자의 이타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헌혈은 기부이며[11], 헌혈 관련 태도와 이타성이 높을수록 헌혈에 대한 참여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1] 토대로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헌혈 실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의료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혈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지식, 태도, 이타성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헌혈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와 이타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G시 소재 C대학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배부하고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에 답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효과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력 .8로 하였을 때 상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82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는 총 133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여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혈액형, 종교, 건강 상태, 대인관계, 입학동기, 전공 만족도,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헌혈 관련 특성으로는 헌혈 경험에 따라 헌혈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와 헌혈을 한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하고 향후 헌혈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 2.3.2 헌혈 지식

헌혈 지식은 Sung[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Kong과 Kim[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헌혈 기준에 대한 내용 7문항, 헌혈 상식에 대한 내용 5문항, 헌혈 후 관리 내용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각 문항에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고, 점수범위는 0~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의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2.3.3 헌혈 태도

헌혈 태도는 Han[13]이 개발한 도구를 Kong과 Kim[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인식적 태도 7문항, 정서적 태도 4문항, 행동적 태도 8문항, 봉사적 태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처리하였다. Han[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4, Kong과 Kim[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3.4 이타성

이타성은 Hwang[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Kong과 Kim[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측정기준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되었다. 측정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처리하였다. Hwang[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9, Kong과 Kim[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시행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 연구 도중에라도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에 대한 분석은 ANOVA와 t-test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지식, 태도, 이타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 정도는 <Table 1>과 같다. 헌혈 지식은 14점 만점에  $10.83 \pm 1.39$ 점이었다. 헌혈 지식 문항들의 정답률을 보면, '헌혈 후 주사부위는 비벼서 지혈을 한다' 문항이 98.5%(131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헌혈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는 문항이 96.2%(128명)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오답률이 높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헌혈은 만 50세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문항이 54.1%(72명), '성인의 총 혈액량은 체중의 7-8%이다' 문항이 45.1%(60명)로 다른 문항에 비해 점수가 낮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문항이 42.1%(56명)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헌혈 태도는 5점 만점에  $3.15 \pm 0.39$ 점이었고, 이타성은  $3.57 \pm 0.49$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f Blood Donation of Subjects

(N=133)

Variables	M±SD or n(%)	Mini	Max	Range
Knowledge of Blood Donation	10.83±1.39	7.00	14.00	1-14
1. Blood donations can be made before the age of 50	72(54.1)			
2. If you don't have a pregnancy addiction, you can donate blood	108(81.2)			
3. If you remove the teeth, you can donate on the same day	124(93.2)			
4. You can donate two weeks after the whole blood donation	86(64.7)			
5. Hepatitis B carriers can not donate blood	124(93.2)			
6. Donations can not be made after taking nutritional or vitamin supplements	103(77.4)			
7. The weight that can be donated is 50kg for men and 45kg for women	114(85.7)			
8. The total blood volume of an adult is 7 to 8% of body weight	60(45.1)			
9. The donor blood vessel is an artery	85(63.9)			
10. After donating blood, the injection site is rubbed to stop bleeding	131(98.5)			
11. Blood donation is divided into blood donation and whole blood	125(94)			
12. You can drink alcohol after the blood donation	124(93.2)			
13. Blood donation helps the diet	128(96.2)			
14. A blood donation certificate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free of charge	56(42.1)			
Attitude of Blood Donation	3.15±0.39	2.00	4.00	1-4
Altruism	3.57±0.49	2.39	5.00	1-5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의 차이

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헌혈 지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도는 지각된 건강상태( $F=4.80$ ,  $p=.010$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태도에서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보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타성에서는 대인관계( $F=6.82$ ,  $p=.002$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3 헌혈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의 정도

본 대상자의 헌혈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 정도는 <Table 3>과 같다. 헌혈 지식은 헌혈 경험 유무( $t=-2.59$ ,  $p=.01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태도는 헌혈한 이유( $F=7.27$ ,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헌혈 태도에서는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 '타인의 권유의 의해', '학교

및 군대의 단체헌혈', '기타'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헌혈 태도는 향후 헌혈계획에 따라( $F=21.32$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헌혈 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기회가 되면 하겠다', '잘 모르겠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타성은 헌혈한 이유( $F=3.33$ ,  $p=.013$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이타성은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 '타인의 권유의 의해'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타성은 향후 헌혈계획( $F=10.28$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이타성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기회가 되면 하겠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3.4 대상자의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 간의 상관관계

본 대상자의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헌혈 태도와 이타성( $r=.447$ ,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헌혈 지식은 헌혈 태도와 이타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 Difference of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f Blood Do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Attitude		Altruism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16(12)	11.25±2.21	0.85 (.406)	3.30±0.53	1.67 (.098)	3.70±0.68	0.86 (.401)
	Female	117(88)	10.77±1.24		3.13±0.37		3.55±0.46	
Age (yr)	20-29	112(84.2)	10.75±1.40	1.25 (.290)	3.16±0.39	0.27 (.764)	3.57±0.51	0.21 (.815)
	30-39	14(10.5)	11.36±1.22		3.15±0.43		3.51±0.42	
	≥40	7(5.3)	11.00±1.53		3.05±0.37		3.66±0.29	
Blood type	A	52(39.1)	10.56±1.41	1.40 (.245)	3.18±0.42	1.06 (.369)	3.48±0.48	1.14 (.335)
	B	36(27.1)	11.17±1.38		3.05±0.32		3.60±0.47	
	O	35(26.3)	10.89±1.41		3.20±0.38		3.67±0.51	
	AB	10(7.5)	10.80±1.14		3.16±0.50		3.54±0.58	
Religion	No religion	89(66.9)	10.80±1.37	1.30 (.277)	3.17±0.42	0.64 (.589)	3.58±0.51	0.20 (.896)
	Christian	21(15.8)	10.67±1.24		3.04±0.33		3.54±0.55	
	Catholic	18(13.5)	10.83±1.72		3.18±0.27		3.50±0.40	
	Buddhist	5(3.8)	12.00±0.71		3.15±0.20		3.63±0.49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a	74(55.6)	10.84±1.52	0.31 (.737)	3.24±0.40	4.80 (.010)* a)b	3.59±0.53	0.22 (.804)
	Moderateb	52(39.1)	10.86±1.17		3.04±0.35		3.53±0.44	
	Poorc	7(5.3)	10.43±1.62		3.05±0.31		3.62±0.54	
Interpersonal relationship	Healthy	88(66.2)	10.88±1.42	3.07 (.050)	3.20±0.39	2.63 (.076)	3.67±0.51	6.82 (.002)*
	Moderate	44(33.0)	10.66±1.26		3.06±0.39		3.38±0.40	
	Poor	1(0.8)	14.00		2.73		2.78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Because of the nurse's appeal	29(21.8)	10.62±1.54	0.78 (.563)	3.12±0.37	1.29 (.272)	3.71±0.53	1.97 (.087)
	Invitation of others	31(23.3)	10.97±1.22		3.03±0.38		3.57±0.53	
	According to school records	8(6.0)	11.63±1.41		3.22±0.55		3.58±0.56	
	Because of employment	57(42.9)	10.74±1.20		3.21±0.35		3.45±0.40	
	To serve	3(2.2)	10.67±3.06		3.47±0.52		4.10±0.82	
	Others	5(3.8)	11.00±2.35		3.16±0.64		3.73±0.5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63(47.4)	10.98±1.53	1.06 (.348)	3.20±0.38	1.27 (.284)	3.63±0.53	1.57 (.212)
	Usually	60(45.1)	10.63±1.28		3.13±0.37		3.55±0.45	
	Dissatisfaction	10(7.5)	11.00±1.05		3.00±0.56		3.34±0.47	
Last semester grade	4.0-4.5	18(13.5)	10.89±1.28	0.15 (.928)	3.23±0.28	0.60 (.616)	3.57±0.42	1.60 (.193)
	3.5-3.9	42(31.6)	10.76±1.71		3.09±0.41		3.51±0.51	
	3.0-3.4	53(39.9)	10.91±1.29		3.17±0.43		3.67±0.51	
	<3.0	20(15)	10.70±1.03		3.15±0.37		3.41±0.45	

\*p&lt;.05, \*\*p&lt;.001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f Blood Donation according to Blood donation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Attitude		Altruism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No	18(13.5)	10.06±1.11	-2.59 (.011)*	3.11±0.45	-0.50 (.617)	3.52±0.53	-0.40 (.693)
	Yes	115(86.5)	10.95±1.39		3.16±0.38		3.57±0.49	
Reasons for non-blood donation (n=18)	Unsatisfactory physical condition(s)	14(77.8)	10.07±1.07	0.11 (.914)	3.14±0.26	0.34 (.756)	3.65±0.42	2.07 (.055)
	Others	4(22.2)	10.00±1.41		2.99±0.90		3.08±0.70	
Reasons for blood donation (n=115)	Recognition of necessity of blood donation	41(35.7)	11.29±1.25	1.54 (.195)	3.32±0.41a	7.27 (.000)** a)b,c,d	3.73±0.53a	3.33 (.013)* a)b
	Suggestions from others	18(15.7)	10.39±1.20		2.94±0.26b		3.27±0.32b	
	Participation in the group blood donation (eg. school, the military)	11(9.6)	10.91±1.51		2.88±0.35c		3.51±0.44	
	Self-motivation to help others	29(25.2)	10.76±1.50		3.26±0.33		3.63±0.44	
	Others	16(13.8)	11.06±1.57		2.99±0.29d		3.47±0.54	
Future plan for blood donation	I will actively donate blood	51(38.3)	10.92±1.44	0.23 (.793)	3.38±0.37a	21.32 (.000)** a)b,c	3.80±0.50a	10.28 (.000)** a)b
	I will donate blood when I have a chance	79(59.4)	10.76±1.36		3.02±0.33b		3.43±0.11b	
	I do not know	3(2.3)	11.00±1.73		2.58±0.05c		3.31±0.21	

\*p<.05,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N=133)**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Altruism
	r(p)	r(p)	r(p)
Knowledge	1		
Attitude	-.020(.822)	1	
Altruism	.081(.352)	.447(.000)**	1

\*p<.05,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을 중심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헌혈 지식 정도는 14점 만점에 평균 10.83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헌혈 경험자가 10.95점, 미경험자는 10.06점으로 미경험자보다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1학년 학생

9.88점, 2학년 학생 11.29점[11], 11.10점[15]으로 보건의료인의 지식 점수 11.48점[5]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9.25점[10]으로 간호대학생의 지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계열이 예체능계열보다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와 보건계열 전공생이 비보건계열 전공생보다 헌혈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6]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Hwang 등[17]의 연구에서도 헌혈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점수는 각각 41.6점, 34.2점, Woo와 Park[15]의 연구에서도 각각 11.34점, 10.18점으로 나타나 헌혈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헌혈 지식 정도가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헌혈 지식 문항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헌혈 후 주사부위는 비벼서 지혈을 한다’가 98.5%(131명), 가장 낮은 문항은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가 42.1%(56명)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11]의 연구에서도 '헌혈 후 주사부위는 비벼서 지혈을 한다' 문항이 92.7%(153명)로 정답률이 높았으며,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문항이 58.2%(96명)로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10]에서는 '헌혈 후 주사부위는 비벼서 지혈을 한다' 문항이 74.4%(134명),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문항은 53.9%(97명)로 간호대학생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는 기본간호학과 같은 교과목을 통해 지혈방법에 대한 상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헌혈증서 사용에 대한 문항은 의학적인 지식보다 헌혈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헌혈 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헌혈 경험자가 3.11점, 미경험자는 3.16점으로 헌혈 경험자가 더 높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15]에서는 4.01점, 일반대학생 대상의 Choi와 Lee[1]의 연구에서 헌혈 경험자는 3.57점, 미경험자는 3.36점으로 본 연구의 헌혈 태도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헌혈 태도 점수가 다른 연구에 비해 낮은 이유는 간호대학생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Woo와 Park[15]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4학년이 포함되어 있어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헌혈 실천율이 높은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Choi와 Lee[1]의 연구에서는 자연계열 전공생이 5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세분화된 학과는 알 수 없으나 보건계열 또는 고학년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헌혈 태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보다 일반대학생의 헌혈 태도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15,17] 보건계열 전공생이 비보건계열 전공생보다 헌혈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6]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헌혈 태도에 대한 헌혈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대상자 표본 수에 있어서 본 연구는 133명인데 비해, Choi와 Lee[1]는 262명, Jun[18]은 29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을 때, 추후에는 간호대학생 3학년뿐만 아니라 전체

학년을 포함하여 비슷한 수준의 표본 수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이타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7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헌혈 경험자는 3.57점, 미경험자는 3.52점으로 헌혈 경험자의 점수가 더 높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Woo와 Park[15]의 연구에서도 헌혈 경험자는 3.62점, 미경험자는 3.58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고, 헌혈 경험자의 점수가 더 높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9]의 연구도 헌혈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의 이타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1]의 연구에서는 헌혈 경험자는 3.48점, 미경험자는 3.2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ng과 Kim[5]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타성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Woo와 Park[15]과 Lee 등[9]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각각 20.7세, 20.9세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대가 84.2%, Choi와 Lee[1]의 연구에서는 19-24세가 7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가 불가피하였으나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로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에서 헌혈 태도와 이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헌혈 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헌혈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이 헌혈 경험자의 헌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19]. 간호대학생들이 헌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내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에서 열리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헌혈 태도 뿐만 아니라 이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성이 공포감보다 더욱 우세하고, 헌혈을 긍정적이고 규범적 행위로 인식하는데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0]. 또한 헌혈 동기 및 기부 동기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타적 동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21], 대학생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이 활발하므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헌혈관련 정보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면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뿐만 아니라 헌혈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 정도는 보통 이상 수준을 보였다. 헌혈 지식은 헌혈 경험 유무에 따라, 헌혈 태도 및 이타성은 헌혈한 이유와 헌혈계획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헌혈에 대한 태도와 이타성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헌혈 경험자와 미경험자에게 서로 다른 헌혈 참여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한점으로는 일 지역의 3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자를 제한시켰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1개 대학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 성인을 연구대상자로 확대하여 헌혈 참여 인구의 확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헌혈 태도와 이타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E. H. Choi & H. S. Lee. (2018).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blood donation in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2), 715-729. DOI : 10.21742/AJMAHS.2018.02.02
- [2] Statistics Korea.(2020). *Blood donation population and personal blood donation ratio*, Statistics Korea(Online).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0)
- [3] Korean Red Cross. (2020). *Blood present condition of possession*, Korean Red Cross(Online). [http://www.bloodinfo.net/bloodstats\\_stocks.do](http://www.bloodinfo.net/bloodstats_stocks.do)
- [4] H. A. Majdabadi, M. Kahouei, S. Taslimi & M. Langari. (2018). Awareness of and attitude towards blood donation in students at the Semn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Electronic Physician*, 10(5), 6821-6828. DOI : 10.19082/6821
- [5] J. H. Kong & M. Y. Kim. (2015). Related factors on the blood donation experience among healthcare provider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628-2638. DOI : 10.5762/KAIS.2015.16.4.2628
- [6] M. O. Anwer, S. H. U. Fawwad, S. Anwer & A. Ali. (2016).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among medical and nonmedical students across Karachi. *Asian Journal of Transfusion Science*, 10(2), 113-117. DOI : 10.4103/0973-6247.187937
- [7] S. Singh, M. Chandrappa, M. Venkatesha & Anil. (2015). Blood donation awareness and beliefs among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Science and Public Health*, 4(10), 1338-1342. DOI : 10.5455/ijmsph.2015.04032015274
- [8] H. A. Majdabadi, M. Kahouei, S. Taslimi & M. Langari. (2018). Awareness of and attitude towards blood donation in students at the semn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Electron Physician*, 10(5), 6821-6828.
- [9] E. N. Lee, Y. S. Song, H. O. Ju, J. Y. Kang, S. J. Kim & J. H. Oh. (2006). Predictive factors of blood don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1), 70-77.
- [10] K. E. Bae, N. Y. Shin, N. Y. Kim, S. Y. Kim, S. M. Park, S. B. Lee, ... & A. L. Heo. (2018). Comparative study about motive for blood donation, knowledge and attitude by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of blood donation. *Health & Nursing*, 30(2), 45-54. DOI : 10.29402/HN30.2.5
- [11] J. Y. Park, S. Y. Yu & S. Y. Park. (2019). Factors affecting blood donation intention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27-37. DOI : 10.5977/jkasne.2019.25.1.27
- [12] J. H. Sung. (2006).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ltruism of blood donors and non-blood don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13] M. H. Han. (2004). *A comparative study of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platelet apheresis donation at hospitals and blood donation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14] M. H. Hwang. (2000). *A study on the altruism of young blood don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5] C. H. Woo & J. Y. Park. (2017). Factors influencing in intention and execution of blood donation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4(2), 101-109.  
DOI : 10.5953/JMJH.2017.24.2.101
- [16] J. H. Kim. (2015). Associ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garding blood don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316-326.  
DOI : 10.5392/JKCA.2015.15.10.316
- [17] B. D. Hwang, C. H. Kim, & K. W. Cho. (2009). A study on attitude and knowledge to blood donat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3(1), 66-77.
- [18] S. H. Jun. (2017). Testing Determinants of Blood Donation Intentions: Comparing Non-Experienced and Experienced Blood Donors. *Health and Social Science*, 45, 65-87.
- [19] W. I. Mauka, M. J. Mahande, S. E. Msuya & R. N. Philemon.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repeat blood donation at the Northern Zone blood transfusion centre in Tanzania.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1-6.  
DOI: 10.1155/2015/717653
- [20] B. S. Jin & M. H. Cho. (2014). How Korean newspapers and television news programs covered blood donatio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facilitators and barriers.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10, 125-152.
- [21] S. Y. Park & K. R. Choi. (2018). Development Process of Donation Motives. *Journal of Product Research*, 36(2), 157-164.

##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박사생
- 2016년 9월 ~ 2019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 E-Mail : nccsemi@gmail.com

##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 ~ 2019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8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 E-Mail : pseudoan@naver.com